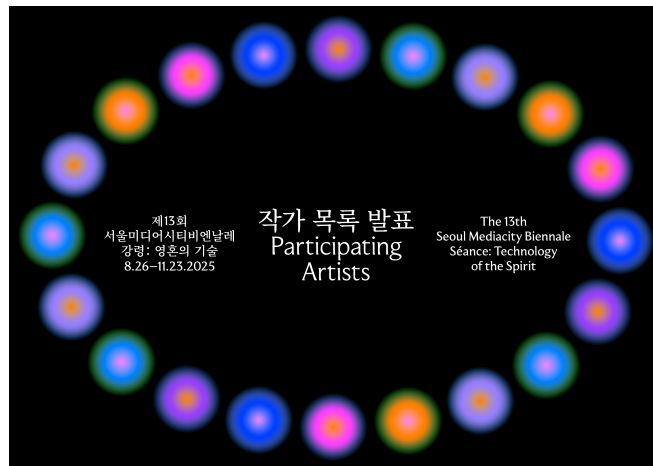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강령: 영혼의 기술》 참여 작가 목록 49명/팀 발표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강령: 영혼의 기술》 참여 작가 목록 아이덴티티, 2025. 디자인: 논플레이스 스튜디오. 서울시립미술관 제공

- 8월 26일 개최되는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강령: 영혼의 기술》 작가 49명/팀 발표
- 조지아나 하우튼, 힐마 아프 클린트, 데구치 오니사부로, 엠마 쿤츠 등 매개자 역할을 자처해 온 예술가들의 혁명적 실천부터 백남준과 요셉 보이스에게서 발견하는 샤머니즘, 마야 데렌과 조던 벨슨 등 초기의 실험 영화 전통에서 전개된 초월적 경험, 그리고 오컬트, 마법과 주술의 다양한 전통과 주제를 다루는 동시대 작가들을 한 자리에 초대
- 호주의 빅토리아 영성주의 연합, 도쿄의 오모토 재단, 미국의 디아 재단과 CVM(Center for Visual Music), 독일의 루돌프 슈타이너 아카이브 등 기관의 주요 소장품 초청
- 이번 비엔날레는 대안적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동시대 미술의 역사적 계보를 알아가며, 해방과 치유로서의 예술 경험을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

□ 서울시립미술관(관장 최은주)은 올해 8월 26일부터 서울시립미술관과 서울의 여러 장소에서 개최될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강령: 영혼의 기술》의 작가 목록 49명/팀을 발표한다.

○ 과달루페 마라비야, 권병준, 노무라 자이, 데구치 오니사부로, 라우라 우에르타스 밀란, 라파엘 케네디트 모랄레스, 루돌프 슈타이너, 뤼실 올랭프 오프, 마누엘 마티유, 마야 데렌, 마이크 켈리, 모하메드 가베르, 박찬경, 백남준, 비올렛 e a, 샤나 몰튼, 수잔 트라이스터, 슈 차웨이, 스카이 호핀카, 아노차 수위차콘퐁, 아밋 두타, 안리 살라, 안민정, 안젤라 수, 애니 베전트와 C. W. 리드비터 어니스트 A. 브라이언트 3세, 엠마 쿤츠, 온다 아키, 요셉 보이츠, 요아킴 쿼스터, 요하나 헤드바, 윙 포 소, 윤형민, 이승택, 인주 첸, 제인 진 카이젠, 조던 벨슨, 조지아나 하우튼, 주역과 예술품, 카라 디테한센, 카라빙 필름 콜렉티브, 코리타 켄트, 콜렉티브 로스 잉그라비도스, 크레이 첸, 키부 루호라호자와 크리스티안 니암페타, 타마르 귀마레스와 카스페르 악호이, 하룬 미르자, 히와 케이, 힐마 아프 클린트, ORTA (알렉산드라 모로조바와 루스탐 베게노프)

□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19세기 중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난 역사 속에서 ‘시대와 조응하는 순간’을 주목하는 작품을 모아 선보인다. 13회 비엔날레 예술감독팀 안톤 비도클, 할리 에어스, 루카스 브라시스키스가 기획한 이번 비엔날레 전시는 신비주의적이고 영적인 경험이 현대 미술과 동시대 미술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 주목하고 있다.

□ 이번 비엔날레는 조지아나 하우튼, 힐마 아프 클린트, 데구치 오니사부로, 엠마 쿤츠 등 매개자를 자처했던 예술가들의 혁명적 실천

에서 출발하여, 백남준과 요셉 보이스에게서 발견하는 샤머니즘의 영향, 마야 데렌과 조던 벨슨의 초기 실험 영화 전통에서 전개된 초월적 경험으로 확장되고, 오컬트, 마법과 주술의 다양한 전통과 주제를 다루는 동시대 작가와 작품까지를 아우른다.

□ 13회 비엔날레 예술감독팀은 “우리는 영성주의, 영화, 정신분석학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개념인 ‘강령’의 형태로서 전시를 창작하고자 한다. 이 말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일상적 층위에서 경험하는 인식은 물론이고, 의식적인 단위에서 가려진 부분까지 넘어서서 초월적으로 접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의 많은 예술가들이 현재의 지배적인 시스템을 위기로 상정하고, 대안적 관점으로 세계를 이해하고자 접근하는 양상들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전시가 실험적 예술의 계보를 추적하고, 해방과 치유로서 예술적 실험을 이해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 이 특별한 프로젝트를 통해 탁월한 예술가들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으로 여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 관장은 “이번 비엔날레는 그동안 서울이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반 발짝 앞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예견하고자 했던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실험성을 더욱 깊이 살펴보고 있다.”라며 “기술 지배적인 동시대에서 인간의 초월적인 경험을 논하는 이번 비엔날레의 주제는 여러 시간과 지역을 가로질러 다양한 배경의 작가들을 서울로 초대한다. 비물질적 영상과 사운드, 일상의 재료로 만든 조각과 설치, 아카이브로서의 작품 등 다양한 형태의 작품들은 보이는 세계 너머로의 사유를 촉발하는 미디어로서 관객들에게 예술 경험의 즐거움과 놀라움을 선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강령: 영혼의 기술》은 기존의 방법론에 도전하고 새로운 형식을 탐색해 온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역사의 연장에서 서울시립미술관과 서울 전역의 여러 장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다수의 신작 커미션과 상영 프로그램 등 자세한 내용은 개막 전 발표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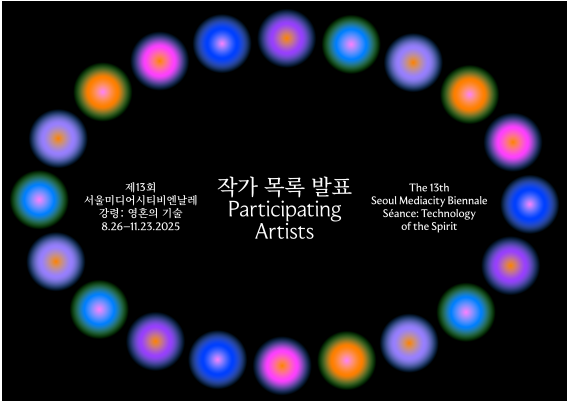
□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강령: 영혼의 기술》은 2025년 8월 26일부터 11월 23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개최되며, 기자 간담회 및 VIP 프리뷰는 8월 25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주최하고 운영하는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2000년부터 도시의 미디어 환경에서 일어나는 동시대적 변화를 실험적으로 탐구하며, 미디어의 개념과 가능성을 재정의해 왔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세 번 개최되었던 《도시와 영상》 전시에서 서울과 미디어에 대한 실험을 나누기 시작했고, 2000년에 시작된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지난 12회의 개최를 통해 세계적인 인정을 받으며 동시대 미디어아트의 실험적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국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세부 내용은 비엔날레 홈페이지 (mediacityseoul.kr)와 서울시립미술관 홈페이지(sema.seoul.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홈페이지 및 소셜 미디어
홈페이지 <https://mediacityseoul.kr>
인스타그램 [instagram.com/seoulmediacitybiennale](https://www.instagram.com/seoulmediacitybiennale)
페이스북 [facebook.com/mediacityseoul](https://www.facebook.com/mediacityseoul)
유튜브 [youtube.com/SeoulMediacityBiennale](https://www.youtube.com/SeoulMediacityBiennale)
- 서울시립미술관 대표 소셜 미디어
인스타그램 <https://sema.seoul.go.kr/>
엑스(트위터) [x.com/SeoulSema](https://twitter.com/SeoulSema)
페이스북 [facebook.com/seoulmuseumofart](https://www.facebook.com/seoulmuseumofart)
유튜브 [youtube.com/seoulmuseumofart](https://www.youtube.com/seoulmuseumofart)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QgRPn

(붙임 1) 주요 이미지 ※ 이미지를 사용할 때 정확한 크레딧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지	크레딧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강령: 영혼의 기술》 참여 작가 목록 아이덴티티, 2025. 디자인: 논플레이스 스튜디오. 서울시립미술관 제공

(붙임 2)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소개

2000년 ‘미디어_시티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SMB)는 지난 30여 년간 도시 서울의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미술의 동시대성과 실험성을 주목하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본 비엔날레는 1996년부터 개최된 ‘도시와 영상’에서 서울과 미디어와 관련한 사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고, 이후 2년마다 열리는 비엔날레 형식으로 시대와 공명하는 다양한 생각과 활동을 담아왔다.

에디션마다 약 50여 명/팀의 작가가 참여하고, 평균 14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SMB는 서울시립미술관과 도시 내의 여러 장소에서 전시와 프로그램을 개최하며 다양한 방식의 참여를 매개한다. 2022년부터 미술관이 운영하는 사전프로그램(프리비엔날레)은 미술관의 비엔날레 소장품과 디지털 기록을 중심으로 SMB 정체성을 탐구하며 본 행사의 바탕이 되는 개념을 축적하고 있다.

mediacityseoul.kr

기본 정보

- 사업담당자: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프로젝트 디렉터 권 진
(02-2124-8975 / nakwonjin@seoul.go.kr)
- 홍보문의: 주무관 권대희(02-2124-8945 / kwon.daehee@seoul.go.kr)

이미지 다운로드 방법

- 아래 링크 접속 및 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dhRnWwiU0G3DaIDXGwKnCroTz67cUshr?usp=sharing>